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제30권 18호(다해) 2010 · 3 · 28

[묵상]



십자가 처형

오로 랑즈(1879-1944), 채색 삽화, 드레스덴, 독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시며,
정해진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시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분을 고소하는 이도,
팔아넘길 이도,
매질하며 조롱하는 이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도,
십자가형을 선언할 벨라도도 필요합니다.
한편,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길에 걸음을 깔아드릴 이도,
손에 팔마 들고 환호하는 이도,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도,
십자가의 무게를 들어드릴 시몬도,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할 백인대장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좋은 역할에 쓰시겠다면
더 없이 행복하겠습니다. -한-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목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들

화요일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오전 오후 오후	2:00 10:00 8:00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오후 오후	9:30 7:00 8:00
토요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오후	6:00 5: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상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첫째/셋째주 - 대학부(PACEM)	오전 중 오전 오후 오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9:00 9:00 1:00 9:00 9:00 1:00 2:30 9:00 1:00 2: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랍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모병익 베드로
	(생)김재욱 라파엘 & 조금순 아네스, 오성민, 오다인, 박연우 크리스티나, 박규하 니콜라오, 이원영 로즈마리, 이원재 베드로, 오서영, 오민재, 박소영 프란체스카, 박세준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이금순 마리아, 이영자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김중환 야고보, 엄은섭 도로테오, 정재우요왕, 김중렬 아가비도, 김진성루스, 주리화 요셉, 신로사, 이판남, 최명진
	(생)고천용 & 고규재 체칠리아 가정, 오현옥 발비나, 김병숙, 윤석환 아우구스딩, 윤걸 바르콜로메오, 제프리 마틴 & 마리아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0,4-7

화답송 ①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전례성가 67, 성지주일>
 ①사람마다 저를 보며 업신여기고, 머리를 끄덕대며 비쭉거리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렵다, 그를 사랑하시니 빼내주시렵다.②
 ①술한 개들이 저를 둘러싸고, 악한 무리 이 몸을 에워쌌나이다. 그들은 제손과 발을 사뭇 뚫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③
 ①저희끼리 겉옷을 나눠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 제비 뽑나이다. 주님, 멀리 계시지 마옵소서. 구원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시옵소서.④
 ①저는 당신이름을 겨레에게 전하고, 그 모임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오리니.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찬양하여라. 야곱의 후예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모두 다 주님을 두려워하여라.⑤

제 2독서 필리피(Philippians) 2,6-11

복음 ①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환호송 ①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②

수난복음 루카(Luke) 22,14-23,56<또는 23,1-49>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57	
봉헌	269	259
성체	나	284, 295
파견	154	156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다.

29). 현대세계 안에 존재하는 생명에 대한 엄청난 위협에 직면하여 누구든지 완전한 무력감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선은 결코 악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없다!

그럴 때, 모든 신앙인들을 포함한 하느님의 백성은 겸손과 용기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1요한 1,1)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생명의 복음은 그것이 아무리 새롭고 심오하다고 해도 인간 생명에 대한 단순한 고찰이 아니다. 또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안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목적인 계명도 아니다. 더군다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약속은 더 더욱 아니다. 생명의 복음은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어떤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토마스 사도에게, 그리고 토마스 사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당신을 알려주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 그리고 라자로의 여동생 마르타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당신을 알려주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26) 예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성부께 생명을 받으신 성자이시며(요한 5,26 참조), 인간들을 그 선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오신 분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

인간은 예수님의 언행과 인격 자체를 통해서, 인간 생명의 가치에 관한 완전한 진리를 "알게 될" 가능성을 얻는다. 인간은 특별히 이 진리를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인간 생명을 옹호하고 증진시킬 사랑과 봉사의 의무를 받아들이고 완전하게 수행할 능력을 이 "원천"에서 받는다.(요한 3,21 참조) 생명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선포되고 충만하게 제시된다. 그것은 구약성서의 계시 안에 이미 나타나 있는 복음이며, 실제로 모든 남녀의 마음속에 새겨져 "한 처음"부터, 창조의 그 시간부터 모든 사람들의 양심 속에 메아리 치은 그 복음이다.

그러하여 모든 죄의 부정적인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가르치듯이 "예수께서는 자신의 전 현존과 출현으로 말씀과 업적, 표시와 기적으로, 특별히 당신의 죽음과 죽은 이들 가운데로부터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마침내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계시를 완수하시고 하느님의 증거로 확고하게 하셨으니, 즉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를 죄악과 죽음의 암흑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삶으로 부활시키신다는 것이다." (◆계속)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을 우리 인간들이 사는 지상으로 파견하셨습니다. 아드님이 부여받은 사명은 인간들의 죄를 모두 사해주고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대신해서 파스카 축제 때 바쳐지는 어린양처럼 자신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때’가 다가오자 아드님께서서는 긴 여정(루카 9,51~19,27 참조)을 마치고 제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혁명을 일으켜 강력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리라는 제자들의 장밋빛 희망과는 달리,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고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며 우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든 제자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처럼 적극적으로 처신하기로 마음먹은 제자는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찾던 예루살렘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를 노리는 이들의 증오에 찬 시선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도 자신들의 기대에 예수님께서 과연 부응해주실 수 있을까 하는 제자들의 불안에 찬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박또박 자기 길, 곧 ‘수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서는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리 2,8)

예수님의 확신에 찬 모습과 제자들의 흔들리는 불신의 모습은 참으로 대조적 입니다. 사실 수난의

길을 예수님이라고 마냥 기쁘게 걸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바친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루카 22,42)와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진 예수님의 땀은 예수님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잘 대변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충실하게 자신의 수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교황 요한 23세께서 남기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는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최상의 지혜를 담고 있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저는 이 위대한 책을 척도로 삼아 세상의 일들과 지식들을 판단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보통 희망하는 유쾌하고 유복한 생활과 정반대의 삶을 상징합니다. 돈이 많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자기 삶의 척도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과 지위와 명예를 포기하기를 십자가는 요구할 테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 심정일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유일한 문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맞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주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사제평생교육원

이번주 전례 봉사회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민승기 로사리아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성인 크리스티나	이희정 크리스티나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3반

다음주 전례 봉사회

다음 주	부활성야미사	학생 미사	부활대축일미사
해설자	최진수 에우세비오	주일학교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제3독서자	유철희 바오로 강혜원 아메스	주일학교	제1독서자 이재용 안드레아
제5독서자 제7독서자	김교복 레오 전하현 마리아	주일학교	제2독서자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사목회		토런스 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주님 수난
성지주일

예수님께서께서는 바스카의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 오늘 당신의 도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수난을 앞두고 우리는 특히 성금요일에 단식과 금욕으로 재를 지킴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의 신비속에 더욱 참여하게 됩니다.

◆ 성삼일(The Easter Triduum) 전례

- 성 목요일 주님만찬 저녁미사 : 4월1일 오후 8시
† 수난감실 성체조배
- 성 금요일 주님 수난예식 : 4월2일 오후 8시
† 십자가의 길(오후 3시)
- 성 토요일 부활 성야미사 / 세례식 : 4월3일 오후 9시
* 각자 초(집에 있는 초)를 지참해주십시오.

◆ 부활 대축일 미사(4월4일)

- 학생미사 : 오전 9시 30분 ● 교중미사 : 오전 11시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 봉헌

- 희생과 국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사순절 희생봉투는 주님 만찬 성 목요일(4월1일)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제1회 부활맞이 친선탁구대회 중간보고

- 마지막 준준결승전(오늘주일) : 5단체중 3단체 준결승진출
- 준결승(28일) : 단체 3팀, 구역 3팀(토복, 토서, PV)중
각 2경기씩 시합진행
- 결승(4월4일 부활절) : 부활절 미사후

◆ 부활맞이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토요 특전미사와 아침미사 참여자들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일시 : 오늘 주일(28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소공동체 구역장/반장, 게시판 안내 참조

◆ 빈첸시오 불우이웃돕기 옷 수집합니다.

- 수집장소 : 친교장 앞쪽 수집함
- 모든 연령대, 모든 종류의 옷(현옷은 깨끗이 손질해서 주십시오.) ☎(310)283-5879 박홍룡 요셉 빈첸시오 회장

◆ 백삼위 대학부/청년부와 CBLM(성서센터)봉사자 친교모임

- 일시 : 3월27일(토)오전 10시, 본당 축구장/친교장
- 행사내용 : Frisbee Football 경기, 그룹친교, 복음나누기
- ☎(310)738-0230 최진수 예수세비오 청년연합회 고문

◆ 주보 광고에 협찬해주신 광고주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주보의 광고비를 보내오신 광고주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주시는 이들 업소를 신자분들께서는 가능한한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부활절을 앞두고 성물부에 새로운 성물이 많이 준비됐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을 형제자매들은 물론 친지들에게 선물할 아이템이 많으니 한번쯤 둘러주세요. 축성받은 성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 문의 : 김춘자 막달레나 ☎(310)539-3377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28일(주일) : 토런스 서2만(전주식롱나물국밥 \$3)
- 4월4일(부활대축일) : 성모회(전신자에 육개장 대접)

성 목요일 성체 조배 시간표 (4월1일)

시간	담당 구역	시간	담당 구역
성 목요일 밤 10시 ~ 11시	성가대	성 금요일 새벽 2시 ~ 3시	토런스 동
성 목요일 밤 11시 ~ 12시	토런스 북	성 금요일 새벽 3시 ~ 4시	P.V.
성 금요일 자정 ~ 새벽 1시	토런스 남	성 금요일 새벽 4시 ~ 5시	하버 / 카슨
성 금요일 새벽 1시 ~ 2시	토런스 서	성 금요일 아침 5시 ~ 6시	구역외 / 전례부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권순봉 김민석 김양금 김 용 김용상 김정순 김정엽 김종문 남명자 남성철 박근식 박길운 박주현 박홍룡 송재훈 송호창 신경훈 안재만 오명섭 유근우 유희연 육근주 이관용 이명자 이숙화 이우성 이인석 이재용 이지윤 장수창 정상문 최금옥 최원석 최현찬 최희숙 한혁수	성전헌금	강숙경 권순봉 김민석 김양금 김 용 김용상 김정엽 김종문 남명자 남성철 박근식 박주현 송호창 신경훈 안재만 유근우 유희연 육근주 이명자 이숙화 이인석 이일길 이재용 장수창 정상문 최원석 최현찬 한혁수 감사헌금 : 윤경옥 김정엽 최이원
	합계 : \$4,095		합계 : \$2,445
미사헌금 : \$2,836		특별목적헌금(그랜드 피아노) : 고친용 & 고규재 채철리아	

공지사항

◆ 부활절 은총시장 행사 도네이션 받습니다.

- 현금, 장난감, 인형 등을 3월 한달간(28일 주일까지) 받음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또는 사무실

◆ 주일학교 부활절 행사

- 초등부 : 은총시장, 미니 올림픽
- 중,고등부 : 미니 올림픽
- 시간 : 오전 10시30분~낮 12시

◆ 부활대축일(4일)에 학생미사는 있고, 학교수업은 없습니다.

- 학생미사 : 오전 9시30분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12학년 * 기간 : 7월23일(금)~25일(주일)
- 신청 : \$175(4월25일까지), \$185(5월30일까지), \$195(마감이후) * 마감 : 5월30일
- 참고 웹사이트 : www.all4godcatholic.com
- 접수 : 주일학교 * 문의 : 강아네스 교장 ☎(310)780-0369

◆ 주일학교 견진성사

- 리허설 : 5월14일(금) 오후 7시30분~9시
- Reflection : 5월20일(목) 오후 7시
- 견진성사 : 5월21일(금) 오후 7시
- 대상 : 주일학교 견진성사 대상자(10학년 이상)
- 장소 : St. Margaret Mary(25511 Eshelman Av. Lomita)
- 견진성사와 대부모는 위 3일의 일정에 모두 참여해야함

남가주 소식

◆ 미주 가톨릭방송 기금모금 골프대회

- 일시 : 4월20일(화) 낮12시30분
- 장소 : Westridge Golf Club(1400 S. La Habra Hills Dr. La Habra, CA 90631)
- 경기방식 : 샷건 플레이, 144명
- 본당별 선수명단 제출 : 3월28일(주일)까지
- 광고희망자, 티박스 스폰서 접수 : 3월28일까지
- 문의 : 대회집행위원장 이재정 사도요한 ☎(562)403-7345

◆ 새우스페이스 지역 교회대항 축구대회

- 일시 : 4월17일(토)
- 대상 :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축구에 관심있는 형제들의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임면조 바오로 ☎(310)404-5991

이번 주 단체 모임

3월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3월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김광자 엘리사벳 328-0847 3/13(토) 오후 7시 성당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3/13(토) 오후 7시 성당
	3	신덕래 데레사 494-1390	신덕래 데레사 494-1390 3/20(토) 오후 7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박인식 토마스 328-1817 3/14(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스테파노 542-2952 3/18(목) 오후 7시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박진숙 로사 543-9051 3/20(토) 오전 11시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3/20(토) 오후 7시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이경수 헬레나 972-9193 3/10(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이상철 크리스토퍼 793-7733 3/12(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권진열 피데스 938-3255 3/13(토) 오후 7시 성당
	3	대전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종열 토마스아퀴나스 784-0460 3/13(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박종선 리비나 748-7323 3/12(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국새환 세바스찬 541-7644 3/12(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박옥진 세실리아 377-0436 3/12(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김인숙 안젤라 265-4701 3/9(화) 오전 10시30분

성주간 전례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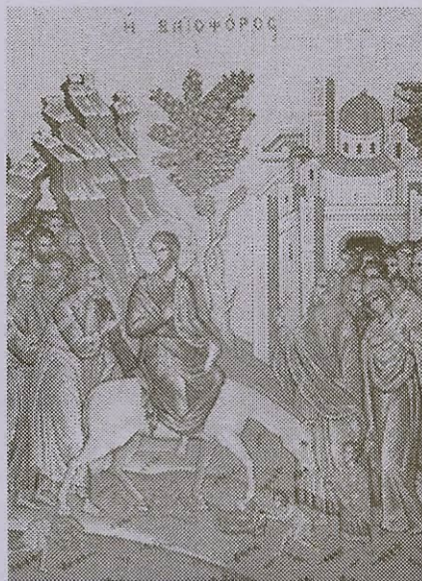
"십자가 고통 초대, 부활 기쁨 맞이"

십자가의 고통 없이 부활의 기쁨은 오지 않는다. 성주간은 일년 중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는 가장 거룩하고 의미 깊은 시간이다. 교회는 주님 수난 성지주일(오늘 28일)부터 부활대축일 전날(4월3일)까지를 '성주간'으로 정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도록 초대한다. 참된 성주간을 보내고 뜻깊은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주님 수난 성지주일·성주간 전례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본다.

성주간이 시작되는 주님 수난 성지주일은 2000년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개선을 예고하는 동시에 그분의 수난을 선포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교회는 이날 성지 축성과 입당행렬을 거행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것에서 비롯됐다. 교회는 이를 기념해 축성한 성지를 들고 행렬하며 "호산나 다윗의 후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를 외친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며, 성지는 승리와 평화를, 행렬은 예수 수난에 대한 선포이자,

부활 신앙의 고백을 의미한다. 이날 사제는 고통을 상징하는 붉은색 제의를 입고, 주님의 수난기를 봉독한다. 예수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성체성사와 사제직을 세우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교회는 이날 오전 교구별로 사제직 제정을 기념해 주교좌성당에서 성유 축성 미사를 봉헌한다. 사제들은 서품 때의 청빈, 순명, 정결의 서약을 갱신하고 주교에 대한 순명과 일치성을 확인한다. 사제들은 세례, 견진, 병자성사에 사용되기 위해 축성된 성유를 나눠 각 본당으로 가져간다.

본당은 이날 저녁,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하며 예수께서 수난 당하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눈 것을 재현하고 기념한다. 강론 후에는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가르친 사랑과 섬김의 계명을 기억하는 발씻김 예식을 거행한다.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나면, 사제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성체를 수난감실로 옮



겨 모신다. 신자들은 이날 밤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마태 26, 40)는 예수의 권고대로 밤새 성체조배를 하며 죽음을 앞둔 예수의 고통에 동참한다.

감실에 성체를 모신 후에는 성금요일 십자가 경배 예절까지 성당의 십자가를 천으로 가린다. 십자가를 가리는 것은 예수 수난에 대한 고통을 묵상하고 참회하려는 것이다. 1년 중 미사를 봉헌하지 않는 유일한 날이다. 성사 자체이신 예수가 무덤에 묻혀 죽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

이다. 신자들은 금식과 금욕을 통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한다. 교회는 이날 주님인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경배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에서 시작된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며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교회는 오후에 미사 대신 수난예절을 거행한다. 말씀의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예식으로 이뤄진 수난예절은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초대한다. 신자들은 십자가 경배 예절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다진다.

예수가 무덤에 묻히신 것을 생각하며 아울러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는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왕이

될 줄 알았던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었고, 그를 따른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끝고타 언덕에는 십자가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이는 적막과 고요를 상징한다. 교회는 이날 제대를 벗겨둔 채로 둔다. 부활을 기다리며 저녁에는 부활성야 예식이 시작된다. 부활성야 전례는 빛의 예식,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로 이뤄져 있다. 빛의 예식은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로 세상을 밝힌 참빛임을 기념한다. 사제는 백색제의를 입고 새 대형 부활초에 회랍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 알파(α)와 오메가(Ω)를 새겨, 그 해 연도를 표시한 후 부활초에 불을 켜다. 신자들을 이때 시작이자, 마침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이어 인류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며 구원의 은총을 기원하는 말씀 전례가 거행된다. 세례수 축복과 세례 서약 갱신식, 새 생명에 참여하는 성찬례가 이어진다.

<◆평화신문에서>